

새해인사

신바람 나는 남구, 희망의 남구 향해 노력



김정훈 국회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신문 독자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급변 한해도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4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

용센터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졌고, 16개 기관 3,600명의 우수인력들이 상주하며 금융중심지의 활력을 높이고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국비 2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유엔평화기념관이 개관하여,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자 세계 젊은이들의 국제평화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문화·주민편의시설의 설치, 환경 및 도로정비 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신바람 나는 남구, 희망의 남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남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직장가 가정에 행복이 깃들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구 위해 젊은 열정으로 뛰겠습니다!



서용오 국회의원

지난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고 어느 때 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 새해엔 우리 모두 더불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우리 남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더욱 많이 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의정활동 3년차였던 지난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을 수없이 오가며 바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뤄놓은 것 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남구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완료한 공약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진행중인 공약은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남구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 언제나 국민편을 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힘은 남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사랑입니다. 잘못에 대해선 꾸짖어주시고, 정찬만을 일엔 어찌 한 번 두드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젊은 열정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민 봉사자로 지역 변화 선도하겠습니다



이호승 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7대 남구의회 의원들의 헌신과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조례안 심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유엔평화기념관 개관 등 남구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복도시 남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감동의 열린 의회', '구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에도 집행부와 상호 협력, 역량 집중”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아

2015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부터 26일까지 6일간 열렸다.

회기 첫날인 2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제출의 건의 안건처리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성동환 의원으로부터 '남구지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이호승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남구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업무의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12월 31일자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익한 자치법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3월 23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우리시와 읍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내용으로는 조례의 1조에서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14조는 도시텃밭 등 지정과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 접속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제14편 경제진흥"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2015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다.

운영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32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 통해 마을에 활기를

성동환 의원
(용당, 감만, 우암동)

남구 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의 재개발사업은 18개소에 이르지만 사업 완료된 대원1구역, 철거중인 대원2구역과 철거 준비중인 대원6구역 외에는 담보상태입니다. 특히 우암1구역은 부산시로부터 모범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진척이 없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생활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공사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재개발추진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몰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와 조합간의 유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정비구역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재개발지역 조합이나 추진위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 당감3구역, 8구역은 시공사인 ㈜현 대건설이 조합측과 함께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하는 채권포기확인서를 부산진구청에 제출해 대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진전유도방식으로 사업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로 부산항과 부산역 일대와 경남 마산항 배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해제된 우암3구역인 우암동 189번지 뱃머리 일원은 6·25 전쟁의 아픔과 일제 강점기의 소감역소와 소막사에 피란민들이 수용돼 지금까지 정착해 살고 있는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을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운 곳은 소규모 정비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면목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재개발 해제 이후 대안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의회 신년회 개최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8일 오전, 의회 의원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참석의원들은 을미년 새해에도 30만 구민의 참된 일꾼으로서 신뢰받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남구의회 의원 인터뷰 ⑦ 박재범 총무위원장(용당·감만·우암동)

“남구 내 지역불균형 해소에 최선의 노력”

“공약을 도둑맞은 것 같아 황당했지만, 그래도 제도가 시행돼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걸로 만족합니다.”

여성이나 청소년 등 범죄에 취약한 약자를 배려해 지난해 9월부터 부산에 전격 도입된 ‘심야 마을버스 안심귀가서비스’. 사실은 이 제도는 남구의회 박재범 총무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 먼저 내건 공약이었다. 지역구인 우암, 용당, 감만 일원이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줄어 버스 노선이 들쭉날쭉해져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문제였다.

공약 시행을 준비하며 부산시에 문의했을 때만 해도 “민간 버스회사의 운행 방침을 관청에서 이래저래 따라 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퇴짜를 놓더니 이제 와서 시가 착안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래도 박 위원장은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홀출을 털어버린다.

20년 넘게 감만동 일원에서 급식소에 쌀을 납품하는 규모가 큰 양곡작업장을 운영해 주위 사람들은 그를 ‘쌀집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는 IMF 외환위기 때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쌀집’을 차렸다. “나랏이 쌀인지도 몰랐다”는 그는 그러나 고객을 감동시킬 아이디어가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쌀을 가마(80kg) 단위로 팔 때였다. 박 위원장은 자체 브랜드까지 붙여 20kg 소포장 포대 쌀을 지역에 유통시켰고,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몰려들었다.



박재범 총무위원장이 남구의회 옥상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박 위원장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 문제의 표면 보다 본질에 접근해 창의적 대안을 이끌어내곤 했다. 지난 11월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그는 오류동 스카이워크 유료화

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소

‘남구 공간’ 지킴이, 오랜 청년회 경험 큰 자산

유연한 사고·역발상 통한… 창의적 대안 제시

다. 이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박재호 남구(을) 후보의 지역조직관리자로 활동하며 현실정치에 뛰어 들었다.

오랜 청년회 활동 경험을 살려 남구의 공간을 지키는 총무위원장으로서 초선임에도 메끄럽고 흙 잡을 데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주위 평가다.

남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우암, 감만 지역은 여전히 공동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며 남구 지역 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관광과 경제자원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남구의 특색있는 색채를 가져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는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초심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